

## 한국국립대학의 傳統과 「국립서울대학교」

### - ‘국립서울대학교의 法統’ 주장의 論據에 관하여 -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한 기 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동창회보」에서는 작년 제366호 이래 ‘모교 개교원년 찾기’가 공식 제기되고 있다. 나는 제367호에서 “국립서울대학교의 法統”이라는 특별기고로써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은 ‘서기 372년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3국 시대 당시, 신라에는 국립대학이 없었고, 백제는 사료가 없기에 결국 국립대학 설치의 상한선이 되는 고구려 「태학」의 개교년으로써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 자신 편찬위원으로서 집필한 「서울대학교 20년사」와 「서울대학교 30년사」, 그리고 「서울대동창회보」에 연재한 「서울대학교의 뿌리」에서도 밝힌 바 있다(출처 「서울대학교의 정신」, 1991, 2006 참조).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 찾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要件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독특한 전통에 대한 바른 역사적 인식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특이성이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1國 1國立大學의 傳統’이라는 것이다.

서기 372년에 세워진 「태학」 이래 그 명칭은 여러 번 바뀌어서, 국학·국자감(후에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이리하여 「국립서울대학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고구려·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1국 1국립대학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 온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 준 일이, 다름 아닌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미군정 하에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다. 이것은 곧 다름 아닌 한국의 국립대학의 ‘부활’이요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요, 실로 상징적인 대사건이었던 것이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설치 당시 아직 미군정 하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에서는 「국립서울대학교」라 했으니 ‘국립’이라는 이 두 글자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너무도 컸던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1국 1국립대학의 역사적 전통’의 ‘法統계승자’요 국립대학의 ‘적통’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는 곧 “개교원년이 다름 아닌 ‘372년’에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호칭의 ‘국립’은, 미국 종합대학을 본따서 세워졌다고 여겨지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즉, 미국에는 ‘주립대학’은 있어도 ‘국립대학’은 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국립서울대학교」의 ‘국립’ 두 글자가 지니는 의미와 무게는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1국 1국립대학의 전통'이 우리나라의 특유한 일로 말한 까닭은, 서양에 최초로 대학이 세워진 서양중세대학 이래 '서양대학의 전통'은 '사립대학'이리는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또, 가까이 일본의 대학사를 보면 우리와 같이 연면한 국립대학은 찾을 수 없다. 현재 가장 오래된 관학은 「동경대학」인데, 그 설립연도는 1868년이다.

이렇듯,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한국 국립대학의 法統 계승자요, 적통으로서 설치된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기만 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을 '서기 372년'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릇 '개교원년'이라는 것은(예: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은 서기 372년) 일단 정해지면 그 후 소재지나 명칭, 교육과정, 기타사항에 변동이 있어도 '개교원년'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또, 일시중단 사태가 있었어도 개교원년에는 변동이 없다. 그 예의 하나로 지난 날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당시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폐지되어 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의 설치로 '부활' 되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인 '372년'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는 것은 물론이다.

알기 쉬운 예로써, 지난 날 일제시대에 불행하게도 「동아일보」가 강제폐간 당하였으나 광복 후 「동아일보」가 복간되었을 때 동아일보사의 창립연도에는 변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얘기인 것이다.

끝으로, '1895년 설'에 관해서이다.

'모교 개교원년 찾기'에서는 이미 세편의 글이 '1895년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좌담회 기사에서도 '1895년 원년 의견이 주류'라는 소재목조차 나왔으나, 이 '1895년 설'은 그 주장의 논거가 심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895년 개교원년설의 근거가 되어 있는 「법관양성소」는 관립이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1국 1국립대학의 전통'에서 말하게 되는 국립대학교의 '적통'은 아니었던 것이다. 1895년 당시에는 엄연히 국립대학교의 적통인 「성균관」이 있었고(이것이 유일한 당시 우리나라 국립대학이었는데), 이는 대한제국시대(1897~1910)까지도 국립대학교로서 존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양성소」는 감히 국립대학의 '적통'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교원년 찾기에 있어 서울대학교의 구성기관 중 단과대학으로서 어느 기관이 그 개설이 앞서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이 대전제인 우리나라의 '1국 1국립대학의 전통'에서 보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서울대학교를 구성케 되었던 당시의 고등교육기관이 각 단과대학의 '前史'로써 의미가 크고, 이미 졸업생들도 각기 동창으로 자연스럽게 가입되어 있으나 이것은 또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 점 나 역시 「서울대동창회보」에 연재한 「서울대학교의 뿌리」에서 각 대학별로 언급한 바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은 '서기 372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리하여 오는 2012년, 「서울대학교 개교 1640주년」을 성대하게 우리 「서울대인」 모두가 축복하도록 합시다(2009. 2. 20. 記).